

언술 은유와 기형도의 시

김 옥 순

1. 은유의 언술 이론

고전 수사학의 비유론 *tropology*에서 문채 *figure*의 의미 작용 가운데 은유에 할당된 자리는 닮음 관계로서 처음 개념이 새로운 개념으로 전이하는 역할로 정의할 수 있다. 은유는 뛰어난 닮음의 비유다. 닮음의 주제는 빌려오기 *borrowing*, 일탈 *deviation*, 대치 *substitution*, 그리고 완전한 말 바꾸기 *paraphrase*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즉 닮음은 무엇보다 빌려오기의 동기가 되며, 닮음이 은유의 긍정적인 면이라면 일탈은 부정적인 면이며, 닮음은 치환 축 안에서의 내적인 연결이다. 그리고 닮음은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켜서 비유를 무효로 만드는 말 바뀌서 설명하기로 이끈다.

언술 은유는 이 은유의 바탕이 되는 닮음의 추론을 단어 수준의 전이 작용에서부터 언술의 작용으로 보려는 이론이다. 이 언술 이론은 닮음과 인접성으로 주장된 은유와 환유의 극단적 단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은유를 단어 수준의 대치로 간주하는 기호 의미의 개념에서 벗어나 문장 수준의 언술로 이해하려는 방향이다.

I. 은유 은유의 이론적 배경

1) 소쉬르적 이분법과 은유의 관계

은유는 소쉬르가 말하는 언어-말, 약호-전언의 엄격한 이분법의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즉 은유란 약호와 전언 사이의 교체에서 이루어지며, 언어가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말 속에 있으며, 또한 의미 교환의 변화 속에 있다.

약호의 특성에서 보면 은유는 다의성에 달려 있다. 이런 다의성은 은유가 개혁을 중단하고 언어에 흡수되어 관용구가 될 때 증대된다. 그러므로 언어-말의 순환에서 다의성은 언어와 동등하고, 살아 있는 은유는 말과 동등하며, 공통으로 사용하는 은유는 언어를 향해 가는 말을 대표한다. 그리고 그 뒤에 생기는 다의성은 언어와 동등하다. 따라서 이 순환은 소쉬르의 언어-말의 이분법으로는 지킬 수 없다.

소쉬르의 공시-통시 이분법은 언어적 사실을 시간의 두 가지 구분 관계(동시성과 계속성)로 분해하고 발전을 넘어서 체계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런데 은유 같은 현상은 어느 정도의 체계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이 있다. 개혁으로서의 은유는 의미 변화 가운데도 있고, 통시적 사실 가운데도 놓여 있다. 그러나 받아들여진 일탈로서의 은유는 다의성과 나란히 정렬되고 공시적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은유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공시-통시의 관점을 벗어나 한쪽의 구조적 측면과 다른 쪽의 역사적 측면을 상호 관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단어는 사실 두 질서를 고려할 교차점에서 있으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기 위한, 그리고 옛 의미를 잃지 않고 지닐 수 있는 두 겹의 성격을 지닌다. 소쉬르의 기술 *description*과 역사를 분할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의성은 통시적 성격의 가능성이 있다. 즉 다의성은 먼것번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은 채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는 열려진 구조, 탄력성, 유동성을 지닌다. 이것은 바로 의미 변화의 현상이

다. 다른 편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생긴 의미 변화도 그것이 공시적 영역에서 사용되고 다의성의 다양함이 나타날 때까지는 완전히 밝혀질 수 없다. 다의성의 언급에서 올만¹⁾은 외국인이 두려워하고 논리학자가 비판하고 일상 언어에서 싸움거리가 되는 문체론적 애매성은 때로 작가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애매한 문장에서 문체화함으로써, 또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단어는 새로운 가치를 얻는다. 그러므로 은유의 속성은 공시-통시의 양면이자, 구조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을 상호 관련시키길 요구한다.

셋째로, 소쉬르의 기호는 사물과 명칭을 결합하지 않고 개념과 시각적 이미지를 결합한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물은 의미에 내포된 요인으로부터 배제되어왔다. 또한 소쉬르적 기호 의미는 기호 표현의 상대방에 지나지 않게 되어 외적 현실과 동떨어진 언어만의 자율적인 세계 속에 분리되어진다.

그러나 외연적인 의미 *denotation*는 기호-사물의 관계로서 언어 외적 현실과의 관련성에 의해 언술을 정의한다. 이같이 영어 철학자의 의미론은 언술의 의미론이며, 그것이 단어를 논의하고 있을 때조차도 외연적 의미의 영역에서 출발함을 발견할 수 있다.

올만의 의미론이 언어 외적 현실로의 허용을 내포하지 않음은 사실이나, 어휘적 의미에서 순전히 가상적 특성인 다의성은 언술에서 가로막힌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문맥적인 기제만이 언어의 다의적인 애매한 말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새로운 의미 발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일탈을 가능하게 하고 특수하게 수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구어적이건 비구어적이건, '맥락'이라는 것을 올만은 지적한다.²⁾ 이 말은 한 단어의 다의적인

1) Stephen Ullmann, *Précis de Sémantique Française*, Berne A. Franke, 1965, p. 216. P. Ricœur, *The Rule of Metapho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77), p. 123에서 재인용.

2) 앞의 글, p. 243. Ricœur, 1977, p. 12에서 재인용.

변이가 일단 문맥상의 의미로 제한되면, 외연적 의미가 필수적으로 기호 의미를 간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문맥적인 형용은 언술을 재도입하고, 언술과 함께 언어의 외연적인 의미의 의도를 재도입한다.³⁾

2) 야콥슨적 이분법과 은유의 관계

로만 야콥슨이 수사학적 이원성을 문채 사용에서가 아니라 언어 기능에서의 근본적인 양극성으로 연결시킨 것⁴⁾은 천재적인 일이다. 그 후 은유와 환유는 단순히 문채나 비유를 뜻하지 않고, 언어의 일반적 과정을 정의하게 되었다. 이런 은유와 환유 사이의 구분은 비유론을 훨씬 넘어서서 일반 화시킴으로써, 그리고 단어 의미를 바꿈으로써 대치와 닮음이 두 개의 분리된 개념이라는 생각을 강화시켰다.

이와 같이 야콥슨의 견해에서 기호는 선택과 결합으로 배열된다. 야콥슨에 따르면 소쉬르는 기호 표현이 순수한 선조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낡은 편견으로 선택의 면을 회생시켰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의 핵은 소쉬르의 것으로 남아 있다. 배열의 양상은 가상적인 기억의 계열체란 '부재하는' 용어들 중에서 선택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통합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약호에서 연합된 것이고 주어진 전언에서 연합된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결합의 경우에 본체들은 실제 전언에서 혹은 양쪽 장소에서 연합된다. 이 점에서 볼 때 용어 사이의 선택이 있는 곳은 하나를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가능성이 있다. 선택과 대치의 이 용어는 한 면에서는 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것들로서 결국 한 가지 작용의 두 면들이다.

만약 환유가 인접에 의지하고 은유가 닮음에 의지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결합 그 자체를 환유적 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선택을 언어학적 적용의 은

3) P. Ricœur, 1977, pp. 122~24.

4) Roman Jakobson, *Selected Writing II: Word and Language* (Paris: The Hague Mouton), 1971, pp. 239~59.

유적 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결합은 기호 표현의 선조성에 일치하게 된다.

비유적 구분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야콥슨의 분석은 벤베니스트가 도입한 기호학과 의미론, 기호와 문장 사이의 구분을 무시한다. 야콥슨의 기호의 일원론은 순수하게 언어학적 특성이다. 이 선택과 결합의 성격은 음소·단어·표현, 그리고 문장·텍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호들이 변별적 특질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다. 이 언어학적 단위의 결합은 상승하는 만큼의 자유를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은 벤베니스트가 기호의 질서와 언술의 질서 사이에서 보는 것 같은 종류의 불연속성을 담고 있지 않다. 기호학에서, 약호화되어야 하는 언어 가운데 단어가 최고의 단위이며, 문장은 단어들보다 더 자유롭게 구성된다. 그러므로 맥락의 개념은 형태소의 음소에 대한 관계, 그리고 문장이 형태소에 대한 관계와 동등하게 지칭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은유는 일반적인 기호학의 과정을 특징지을 것이고 언술과 기호 사이의 구분이 필수 요건인 사람에게는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의미를 언어학적 분야로부터 배제하려는 미국 언어학자에 대해서는 의미론자들은 기호학적 질서로부터 그 정당성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양극적인 도식으로 연합해왔다.

기호학에다 의미론이 새로운 연결 고리를 덧붙임으로써 결합-선택의 쌍에다 통사론-의미론의 쌍을 겹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전언 내부의 결합의 사실들이 통사의 사실들이거나 통합적 사실 *syntagmatic facts* 이 되었다. 통사론을 단어 구성이나 음소적 연속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문맥의 결합과 통합적 결합이 겹치게 된다. 한편으로 선택과 의미론 사이의 결합은 마찬가지로 긴밀하다. 통사론은 연결의 축으로 언급되고, 의미론은 대치의 축으로 언급된다. 의미론과 선택 사이의 이 연결은 이미 소쉬르에 의해 지각되었다. 전언 구성에서, 한 단어는 유사성 *similarity*에 기반을 둔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한 집단 내에서 다른 유사한 단어 가운데 선택된다. 그래서 소쉬르의 통합적이고 계열적인 쌍을 통사론과 의미론으로

대치하는 게 가능하고, 이것을 결합과 선택의 직각의 축으로 배열하는 것이 가능하다. 야콥슨의 일반 언어 기능에서의 은유-환유의 이분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은유-환유
 계열체-통합체
 유사-인접
 의미론-통사론
 초언어-말
 대치-연결
 선택-결합

먼저 수사학의 영역에서의 은유-환유가 단순히 유사-인접으로 대립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두번째로 인접성이 곧 통사론이라고 볼 수 있을까의 의문이 생긴다. 세번째로 초언어가 선택을 한다고 해서 곧 은유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의 의문이 생긴다. 네번째로 결합의 축이 통사론이고 대치의 축이 의미론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의문이 생긴다. 다섯번째로 이런 기호학의 일원론에서는 은유를 언어의 현상인 남유 *catachresis*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의 문제점이 생긴다.

다시 말하자면 첫째, 유사-인접으로서 수사학의 영역을 은유-환유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다. 여기에 제유 *synecdoche*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야콥슨이 제유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인접성에 속하는 것으로서 때로는 환유와 병행시켜서(환유적 치환과 제유적 압축으로 프로이트에게 나타남), 때로는 환유의 종 *species*으로서 취급한다. 그러나 환유·제유·은유의 삼각 도식에서 볼 때는 야콥슨의 견해와 달리 닮음은 인접성이 아니라 포괄(제유)과 배제(환유)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들에 대립된다.

두번째는 인접성이 곧 통사론인가의 의문이다. 즉 술부 작용의 통사론을 지배하는 논리적 작용과 진술의 대등성과 종속성으로 된 통사론을 지배하는 논리적인 작용이 같은 종류에서 생겼는가 하는 의문이다. 통사론은 필요성의 질서를 대표하고, 완전히 공식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그런데 인접성은 불확정의 질서에 머무르며, 더 나아가 대상 자체의 층위에서 부수적인 질서에 머무르며, 그 속에서 매 사물은 완전히 독립적인 전체를 형성한다. 그래서 환유적인 인접성은 통사적 연결과 아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세번째로 초언어를 은유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초언어는 약호 안에 새겨진 가상적 답음을 이용하고 전언에서 그것을 응용한다. 이와 달리 은유의 등가적 정의는 예를 들어 약호에 대해서만 말한다. 그러므로 언술에서의 '답음'의 사용과 층위들간의 계층을 요구하는 전적으로 다른 작용의 사용이 같은 집단에 놓일 수 있는가의 의문이 생긴다. 은유적 전개 과정에서 볼 때 만약 '선택-대치'의 궤도가 '상호 작용'의 현상을 위한 아무런 장소가 없다고 한다면, 특히 은유적 진술 현상을 위한 장소가 없다면 은유 작용이란 너무 좁기조차 하다.

네번째로 대치의 축이 의미론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야콥슨적인 의미에서 유사성은 한 은유적 용어를 그것이 대치된 용어와 연결한다. 그런데 대치로 언어의 의미론적 측면을 축소시키는 것이 합법적인가의 의문이 생긴다. 퍼스가 영감을 느꼈고 야콥슨이 선언한 것처럼 "한 기호의 의미는 그것이 기호를 대치하여 [...] 번역할 수 있는 기호다"라고 했다. 그것은 대치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합의 영역에서도 추구되어야 하지 않는가의 의문이 남아 있다.

다섯번째로 의미론의 현상인 은유를 기호학의 일원론에서 언어의 현상인 남유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점이 생긴다. 기호학적 일원론에서는 새롭게 발명된 은유와 상식적으로 사용된 은유 사이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은유의 술부적 성격의 생략과 더불어 소멸되어버린

다. 일반적으로 볼 때 남유를 사용하는 것은 억제된다. 그러나 은유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유다. 만약 언어 현상과 언술 현상을 대조할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 명명화 *denomination* 작용의 확대이고, 그 덕택으로 언어 현상인 남유와 은유의 언술 현상 사이의 차이는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은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발명된 은유는 언술의 현상이자 일상적이지 않은 속성이다. 야콥슨의 일반화된 모델은 이 차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야콥슨에게 결합은 전언이나 약호에서 발생하지만, 선택은 약호에서만 작용한다. 그런데 그 선택 자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선택이 맥락에 의해서 창조된 독창적인 결합에 기인해야만 하고 따라서 약호 안의 맥락이 형성되기 이전의 결합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하자면 추구되어야 할 은유의 비밀은 일상적이지 않은 새롭고 순수하게 맥락적인 결합의 영역에서와 통합적인 연결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⁵⁾

여기서 연합성 *association*이 붙여넣은 제한된 수사학에서 문채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은유와 환유 사이의 거짓된 균제에 책임이 있다고 보게 된다. 이 균제는 매우 속임수적이다. 단지 환유만이 한 단어가 또 다른 단어의 자리에 있는 명명화 현상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환유만이 홀로 대치 이론 *substitution theory*을 만족시킨다. 왜냐하면 환유만이 홀로 명명화의 제한 속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은유는 그것이 술부 측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명명화의 측면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영어권의 작가들이 인식했던 것으로서, 단어는 언술이 술부적 단계에서 불일치의 위협에 직면하기 때문에 의미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단어 의미론의 윤곽 안에서 의미의 개혁으로 보이는 대가를 지불해서 그 이해를 재확립할 수 있다. 환유의 이론은 언술과 단어 사이의 그러한 교환력이 없다. 이것은 환유의 역할이 없는 언술에서 은유의 역할이 의미 있는 이유다. 즉 은유는 환유가 소홀히하는 술부의 운용을 움직이

5) P. Ricoeur, 1977, pp. 174~80.

기 때문에 환유보다 우세하다.

두번째로 문채의 심리적인 해석은 문채 구성에 있어 단어와 문장 사이의 상호 교체를 완전히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는 더 심각한 결점이 있다. 연합의 분야에서는 은유와 환유가 명명화의 영역에 계속 존재하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인접이나 유사에 의한 연합의 심리학적 기제에 기초를 두므로 대치 이론을 강화하도록 돕는다는 점이다.⁶⁾ 그러나 대치 이론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은유를 단어의 층위에 묶음으로써, 외적 현실을 지시할 수 있는 언술의 술부 운용을 배제하게 한다. 또한 은유를 대치로 본다면 결국 본래의 의미의 환원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의미 창조 현상이 아닌 장식적 현상에 떨어지게 된다.

II. 언술 은유의 근거

1) 사건으로서의 언술

언술은 사건으로서 항상 발생하지만, 의미로서 이해되는 것이다. 언술의 사건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벤베니스트는 언술이란 언어가 발화자의 말로 활성화된 별개이면서 항상 독특한 행위⁷⁾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언술과 언어 사이의 대조를 보면⁸⁾ 언어학적 체계는 그것이 공시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이동 속에서 가상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언어는 실제로 발화자가 언어를 그의 소유로 택하고 활성화할 때만 존재한다. 그러나 언술의 사건은 변천하고 연속되므로, 그것은 '동질성'으로서 동일화되고 재동일화될 수 있다. 이같이 주어진 광범위한 점에서 언술의 단위를 동일화할 가능성을 지닌다. 의미의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모든 개별적 본체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재동일시할 수 있다고 스트로슨 P. F. Strawson이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그것은 현저하게 반복할 수 있

6) 앞의 글, p. 133.

7) E. Benveniste, 1966, p. 217. P. Ricoeur, 1977, p. 70에서 재인용.

8) P. Ricoeur, 1977, pp. 70~76.

는 사건인 언술의 예가 된다. 바로 이 특질이 언어 요소에 대해 실수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사건의 반복성이지 체계의 한 요소가 아니다.

그라이스 Paul Grice의 구분을 덧붙이자면 그의 의미론은 발화 의미 *utterance meaning*, 발화하고 있는 의미 *meaning of the uttering*, 발화자의 의미 *utterer's meaning*를 차이화하는 것이다. 이 구분에 따르는 것은 언술의 본질에 속한다. 그 바탕은 벤베니스트에서 발견되는데, 한편으로는 언술의 예에서,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의도된' 언술을 말한다. 이것은 분리된 기호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소쉬르의 기호 의미는 언어 체계 안에서의 단순한 차이로서 기호 표현의 상대방일 뿐이다. 이와 달리 의도나 의도된 것은 발화자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다.⁹⁾ 기호 의미의 의미 *signified meaning*는 기호학적 질서에 속하고, 의도는 의미론에 속한다.

2) 동일화 기능과 술부적 기능

언술에는 동일화 기능과 술부적 기능이 구분된다. 스트로슨에 의하면, 모든 명제는 개인을 나타낸다. 개인은 여기서 하나의 고유한 논리적 주어를 의미한다. 언어는 단수적 동일화를 허용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의미가 언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네 가지가 나타나는데 고유 명사·지시사·대명사, 그리고 한정사다. 한 가지 사물, 그리고 하나를 특수화한다는 것, 그것은 동일화하는 표현의 기능이고, 그 논리적 주어는 궁극적으로 생략될 수 있다. 술부와 연합된 것은 성질 형용사(커다란, 좋은)이고 그 실사(거대함, 善)의 상대물이며, 개인이 속하는 계층들(광물, 동물들), 관계들(X는 Y 옆에 있다), 그리고 행위들(브루투스네 시저를 죽였다)이다. 성질·계층·관계, 그리고 행위의 공통점은 그것들이 보편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한 가지 행위의 유형인 '달리는 것'은 아킬레스와 거북 양쪽을 말할 수 있

9) E. Benveniste, 1967, p. 36. P. Ricœur, 1977, p. 72에서 재인용.

다). 이것은 언어의 근본적인 양극성을 만드는데, 한편으로는 명칭이 있는 개인에 뿌리를 두었고, 다른 편으로는 원리상으로 보편성 있는 성질·계층·관계, 그리고 행위를 서술한다. 언어는 이 두 기능들 사이의 비대칭을 기반으로 한다. 동일화하는 기능 *the identifying function* 은 항상 존재하는 본체를 가리킨다.

내가 어떤 것을 말할 때, 원리상으로 나는 존재하는 어떤 것을 말한다. 존재의 개념은 언어의 단수형의 기능에 연결된다. 고유한 논리적 주어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언어가 사물에 ‘매달려 있는’ 지점이다. 대조적으로 보편적 관점을 택하면서 술부의 기능은 비존재성을 언급한다. ‘술부’와 나란히 있는 ‘주어’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진술의 술부적 용어는 그것이 정말로 ‘주어’를 결정하기 때문에 벤베니스트는 술부가 언술의 기준인 것으로 충분하다고¹⁰⁾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스트로슨의 분석에 대립하려고 한다. 아마도 이 명백한 불일치는 논리학자와 언어학자의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인 것 같다.

언어학자는 주어 없이 술부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논리학자는 주어의 한정이라는 술부의 임무가 항상 단수화된 동일성의 상대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스트로슨적인 구분은 실제로 기호학과 의미론 사이의 구분에서 정당성뿐만 아니라 등가성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기호학은 총체적이거나 보편적 기능을 갖고 있고, 의미론은 단수로 조망한다. 즉 ‘기호의 가치’는 항상 일반적이고 개념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특별하거나 부수적인 기호 의미와 아무 관련도 없고, 개인적인 어떤 것은 배제된다. 상황에 의한 요인들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이 상황에 의한 요인들은 ‘언술의 예’의 개념에서부터 진행된다. 사용하고 행동하므로, 환경을 설명할 수 있고 특별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술이다. 벤베니스트는 더 나아가 “의미론에 속하는 표현인 문장은 단지 특별한 것만 언급한

10) E. Benveniste, 1966, p. 109. P. Ricœur, 1977, p. 71에서 재인용.

다”¹¹⁾고 한다. 이같이 다시 스트로슨의 분석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언술 안에서만 일반적인 용어는 단순적 기능을 취하기 때문이다. 지금 술어는 그 자체 내에서 보편화하는 기능이 있고, 단지 술어가 한 고유한 논리적 주어를 결정하는 한에서 상황적 성격이 있다.

만약 술부 자체가 문장을 특징짓는다고 제의한다면 스트로슨의 분석과 벤베니스트의 분석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남아 있다. 스트로슨의 분석에서 술부는 그것이 계층·성질·관계, 혹은 행위의 범주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이 남아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점을 분명히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술부가 일반적인 때조차도 그것에 특별한 적용을 전달하는 것은 언술로 의도했던 총체적인 문장이다. 즉 문장은 항상 여기와 지금에 구체화된다. 숙어 *idiom*가 무엇일 수 있든지간에 예외 없이 언어 형성은 특별한 현재에다 항상 환경과 독특하게 결합한다. 언어는 개별적으로 형태론으로 언급된다.¹²⁾ 두번째로 다음에 언급하겠지만, 이 전체로서의 문장 자체는 어떤 의미와 지시성을 갖는다.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는 어떤 상황과 동떨어진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의 지시성은 그것을 때로 진실이게 하고 때로는 거짓이게 한다.

3) 언술 행위의 구조

언술 행위는 각각 언표 내용 *locution* 측면과 언표 행위 *illocution*의 측면에 관련시켜 고려될 수 있다. 오스틴이 도입한 이 구분은 벤베니스트의 언술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며 재배치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언제 말하는가? 우리는 몇 개의 층위에서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말하는 행위나 언표 내용상의 행위가 있다.

11) 앞의 글, p. 36. P. Ricœur, 1977, p. 71에서 재인용.

12) 앞의 글, p. 37. P. Ricœur, 1977, p. 72에서 재인용.

이것은 술부와 동일화하는 기능을 함께 가져올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어 '문'과 행위 '달는다'를 결합하는 행위는 명령이나 바람, 후회를 나타내는 진술로 달성될 수 있다. 이들 다양한 양상은 명제적 행위 자체와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중에 하는 그 '세력'과는 관련이 있다. 말하는 가운데 나는 약속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진술에 복종한다. 이런 종류의 분석의 창시자인 오스틴 J. L. Austin이 처음 흥미를 가진 것은 또 다른 차이에 관해서다. 즉 서술적인 것 *constative*과 약속이란 수행적 *performative* 존재의 모델 사이의 차이다. 약속하면서 나는 말로 약속한 바로 그 일을 한다. 즉 말에 따라 나는 스스로 저지르고, 스스로에게 행동의 의무를 지운다. 수행은 현재 지적되는 일인칭 단수 진술이고 그것은 그 사람이 저지르는 데 따른 그 행동을 언급한다. 발화 행위의 이론은 수행적인 것이 특별히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할 때 더 발전된다. 서술적 발화에서 나는 약속하는 것과 차이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저지른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 만약 내가 "고양이가 깔개 위에 있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모순은 명제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첫 번째 명제 속에 함축된 자기-참여와 그것을 따르는 외현적인 부정 사이에 존재한다. 따라서, 언술 행위의 복합적인 구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수행적인 것은 아니다. 발화 내용 사이의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된 믿음·욕망·감정 등 정신적 행위에 상응하는 언어 요소에 자리잡도록 한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4) 의미와 지시성

이 용어들은 프레게 Gottlob Frege에 의한, 「의미와 지시성에 관하여 Über Sinn und Bedeutung」에서 유도된다. 의미와 지시성의 구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문장이다. 총체로서 택해진 문장의 차원에서만 말해진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구분될 수 있다. 이 차이는 A와 B가 다른 의미를 갖는, $A = B$ 란 단순한 등가적 개념에 이미 내포되었다. 그러나 우

리가 한쪽이 다른 쪽과 동등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그것이 같은 사물을 언급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분명히 한 지시성에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경우(알렉산더의 스승이나 플라톤의 학생)와 어떤 지시물도 경험적으로 합당할 수 없는(지상에서 가장 먼 것) 경우를 찾으므로 의미와 지시성 사이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다.

의미와 지시성 사이의 차이는 필요하고 광범위한 언술의 특성이고, 언어의 내재성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언어에는 아무런 지시성의 문제가 없다. 즉 기호는 같은 체계 안에서 다른 기호를 언급한다. 문장의 현상 속에서 언어는 그 문장 바깥으로 통과한다. 지시성은 언어의 자기 초월적인 표시다. 다른 것보다 더욱 이 특질은 의미론과 기호학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표시한다. 기호학은 내적 언어학의 관계만을 인식하고 이와 달리 의미론은 기호와 외현적 의미를 지닌 사물 사이의 관계를 택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언어와 세계 사이의 관계다. 따라서 기호 표현-기호 의미 관계에 의한 기호의 개념과 사물과의 관계에 의한 기호의 개념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지시성의 문제를 기호 의미의 언급보다 좀더 일찍 구별했던 의도된 것의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언어 밖에까지 도달하는 것은 기호 의미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다. 즉 기호에서 우리는 언어 내적 현실에 도달했고, 반면에 문장에서는 언어 밖의 사물과 연결한다. 그리고 기호의 구성적인 대응물이 기호 의미로서 기호에 내재하는 것인 반면에, 문장의 의미는 언술 상황과 발화자의 태도에 대한 지시성을 함축한다.¹³⁾

5) 지시성과 발화자의 지시 현실

지시성 *reference*은 그 자체가 변증법적인 현상이다. 언술이 상황을, 경험을, 현실을, 세계를, 언어 외적인 모든 것을 언급하는 만큼, 역시 언술에

13) 앞의 글, p. 36. P. Ricœur, 1977, p. 74에서 재인용.

는 본질적이지만 언어에는 그렇지 않은 과정의 수단에 의해서 발화 자체를 언급한다. 이 과정의 첫 단계에서 우리는 인칭대명사를 발견한다. 즉 단어 '나'는 그 자체는 아무 의미 작용도 없지만,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언술의 지시성을 지시해주는 자다. '나'는 말하고 있는 존재인 그 사람으로서 한 문장 속에서 그 스스로에게 '나'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같이 인칭대명사는 본질적으로 언술의 기능이고, 누군가가 '나'라고 말할 때만 의미를 갖고 '나'라고 말하므로 그 스스로를 지칭한다. 인칭대명사에는 동사의 시제가 덧붙여질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다른 문법적 체계를 구성하지만 그것들은 현재에 자리잡고 있다. 인칭대명사같이, 현재는 자동으로 명명된 *auto-designed*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언술이 말해진 존재가 있는 그 순간이다. 이것은 언술의 현재성이다. 현재의 수단에 의해서 언술 자체는 시간적으로 그 자체의 성격을 규정한다. 부사들(여기, 지금 등)에 의해 같은 것이 말해지고, 그것 모두는 언술의 예와 연결된다. '이것'과 '저것'의 지시사들도 역시, 그의 대립은 발화자의 관계로 결정된다. 자기 지시적인 만큼 넓게, 언술은 절대적인 이것—여기—지금을 확립한다. 이 자동 지시적 성격은 언술의 예에 대한 언급에 내포된다. 그리고 그것은 발화 행위 이론과 연결될 수 있다. '단언적·의문적, 그리고 명령적'인 문장이 할 수 있는 발상은 서술부에 의존하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발화자가 요구하는 언술 표현은 다양하다.

계열적 관계는 체계 안에서의 기호에 관한 것이고 기호학적 질서에 속한다. 야콥슨과 구조주의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항 대립'의 법칙은 그것에 적합한 것으로 통한다. 한편 '통합체'는 문장의 의미가 성취된 특수한 형식에 주어진 명칭이다. 이런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계열체가 기호화이고 통합체가 의미론이라면, 계열적 법칙인 대치는 기호학의 측면에 속한다. 따라서 언술로 취급된 은유—은유적 언술—는 통합체의 일종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은유적 과정을 계열적 측면에 놓고, 환유적 과정을 통합적 측면에 더 이상 놓을 수 없다. 이것은 은유를

대치를 통해 단어에 영향을 주는 의미 현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이 기호학적 분류는 의미론의 연구를 은유로 실현된 언술(따라서 통합체의 형태)로 형태화함을 방해하지 않는다. 정말로 의미 효과가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의 어떤 상호 작용에서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면 은유적 진술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통합체로서다. 벤베니스트가 은유에 부여한 자리는 다음과 같다. 즉 “은유는 단어 자체가 지닌 특질이 아니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단어의 특질이 모순될 수 있으며, 단어들의 존재를 한자리에 함께 설정한 결과, 단어들은 단어 자체가 지니지 못했던 특성을 드러낸다.”

2. 은유로 보는 기형도의 시

I. 경계선의 세계

1. 구름으로 가득 찬 더러운 창문 밑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다, 마룻바닥 위에
그의 손은 장난감처럼 뒤집혀져 있다
2. 이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온 것처럼
비닐백의 입구같이 입을 벌린 저 죽음
3. 감정이 없는 저 몇 가지 음식들도
마지막까지 사내의 혀를 괴롭혔을 것이다
4. 이제는 힙과 털이 빠진 개 한 마리가 접시를 노린다
5. 죽은 사내가 살았을 때, 나는 그를 몇 번인가 본 적이 있다
그를 사람들은 미치광이라고 했다, 술과 침이 가득 묻은 저
엮어진 망토를 향해, 백동전을 던진 적도 있다
6. 아무도 모른다, 오직 자신만이 홀로 즐겼을 생각
끝끝내 들키지 않았을 은밀한 성욕과 슬픔

어느 한때 분명 쓸모가 있었을 저 어깨의 근육

그러나 우울하고 추악한 맨발 따위는

동정심 많은 부인들을 위한 선물이었으리

1.' 어쨌든 구름들이란 매우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한다

7. 미치광이, 이제 빗방울조차 두려워 않을 죽은 사내

4.' 자신감을 얻은 늙은 개는 접시를 엮지르고

1." 마루 위엔 사람의 손을 닮은 흉측한 얼룩이 생기는 동안

7.' 두 명의 경관이 들어와 느릿느릿 대화를 나눈다

어느 고장이건 한두 개쯤 이런 빈집이 있더군,

이따위 미치광이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 죽어갈까

4." 더 이상의 흥미를 갖지 않는 늙은 개도 측은하지만

1."" 아무도 모른다, 저 홀로 없어진 구름은

처음부터 창문의 것이 아니었으니

——「죽은 구름」

이 시는 한 미치광이 결인의 죽음을 현장 검증하는 르포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를 문장 구분 겸 의미 단락으로, 즉 언술 의미로 단락을 나누어 번호를 붙였다. 이 시에서는 세 대상물인 '구름과 죽은 사내와 떠돌이개'가 나타난다. 창문 밖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집 안의 바닥에는 사내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 옆에 개가 있다. 언술 1~3: "그의 손은 장난감처럼 뒤집혀져 있다/이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온 것처럼/비닐백의 입구같이 입을 벌린 저 죽음/감정이 없는 저 몇 가지 음식들도/마지막까지 사내의 혀를 괴롭혔을 것이다"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죽은 사내의 손을 장난감으로 비유하고 있고 사내의 죽음은 비닐백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들은 일련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데, 죽은 사내의 상태는 비닐백의 입구가 열리듯이 죽음의 상태가 시작된 상태다. 즉 죽은 사내는 죽음의 상태이지만 아직 생명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생과 사의 중간적인 단계에 있다. 비닐백의 대립항은 가죽 가방으로 사람의 몸 상태도 이에 대응된다.

내용물이 있는 어떤 가죽 형태라는 점에서 비닐백과 사람의 몸은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차이성도 갖는다. 유사성은 첫째, 내용물을 둘러싼 가죽이 있다. 살가죽-비닐 가죽. 둘째, 내용물이 있다. 셋째, 입구가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공통점이 차이점을 안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몸	/	비닐백
겉: 살가죽	/	인조 가죽
내용물: 피+뼈+물	/	물체(개인 소지품들)
유기물	/	무기물
입구: 사람의 9空	/	가방 입구

그런데 이 죽은 사내의 시체는 생과 사의 중간적인 단계로서 살아 있는 손과 형체 없는 무(無)의 중간에 있다.

生	/	중간 단계	/	死
살아 있는 손	/	장난감 손(사람 손의 모조물)	/	형체 없음
가죽백(사람 몸)	/	비닐백(가죽백의 모조물)	/	형체 없음
형체 있음	/	형체 있으나 유기체 기능은 중지	/	형체 없음

여기서 생과 사의 차이점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체온이 있다	/	체온이 없다
부드럽다	/	굳어졌다
구멍이 닫히다(유기체)	/	구멍이 열린다(활동 중지)
혀·이 등 몸의 기관이 활동	/	몸의 기관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
생존 조건(외식주)에 얽매인다	/	얽매이지 않는다

언술 3에서 “감정이 없는 저 몇 가지 음식들도/마지막까지 사내의 혀를 괴롭혔을 것이다”에서는 바로 위에서 특징으로 잡은 의식주 중의 음식을 구하여 먹어야 하는(食) 생존 조건이 나타난다. 언술 5에서는 생전에 망토를 입고(衣) 엎드려서 구걸을 하던 사내의 모습을 화자가 회상한다. 언술 7에서는 “이젠 빗방울조차 두려워 앓을 죽은 사내”에서 주거의 문제(住)가 언급되고 있다.

언술 6에서 보면 죽은 사내가 살아 있을 동안 가졌을 감정, 성욕과 슬픔에 대해 상상한다. 죽은 사내의 근육과 맨발 등은 언술 5에서 사내가 거지 노릇을 하면서 백동전을 받는 데 필요한 더럽고 추악한 물골을 표상한다. 어떤 존재도 살아 숨쉴 때는 성욕과 슬픔뿐 아니라 어깨의 근육과 같은 감각을 힘차게 느꼈을 것이다. 비록 추악한 물골과 힘든 생존 방식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제유적 기법으로 의복 ‘망토’가 나타난다. 즉 “엎어진 망토”로서 거지 사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일부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제유적 기법이다. 이런 제유적 기법은 사내의 손이 장난감 손으로 비유되는 것에도 나타나는데, 즉 언술 1: “그의 손은 장난감처럼 뒤집혀져 있다”는 언술 1”에서 “마루 위엔 사람의 손을 닮은 흥측한 얼룩이 생기는 동안”으로 이어지면서 시체 상태가 치위짐을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다음 3단계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生	/	시체 상태	/	死
진짜 손	/	장난감 손	/	손 모양의 얼룩만 남음
생명체	/	시체	/	시체 치음
술·침·혀	/	굳은 혀	/	재

언술 4: “이제는 힘과 털이 빠진 개 한 마리가 접시를 노린다”에서 나타나는 개와 사내의 공통점을 생각하면, 1) 떠돌다, 2) 더럽다, 3) 먹어야 사

는 생명 조건을 갖고 있다, 4) 사회 질서 내의 존재가 아니라 사회 밖의 존재다, 5)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살지 않는다. 즉 노동의 필요성은 모르고 생명체란 실존성만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이들의 차이점을 생각하면 1) 사내는 의복이 필요하고 주거지가 필요하지만 개는 입을 필요가 없고 난방·냉방도 자체 해결하며, 2) 주거지가 있으면 좋지만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사내와 개를 같은 비유의 계열체로 묶어주면서 또한 차이성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서 작용하게 된다. 유사성만 있고 차이성이 없다면 비유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구름과 사내(개)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구름의 언술 1, 1', 1'''에서 그 속성이 나타난다. 즉 구름은 1) 창문 밖에 몰려 떠 있고, 2) 더럽고, 3) 다루기 어렵고, 4) 저 홀로 없어질 줄 안다는 속성이 나타난다. 공통점은 사내에게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속성인데 1) 사회 밖의 존재이고, 2) 더럽고, 3) 다루기 어렵고, 4) 남의 관심을 끌지 않고 사라진다. 이들의 차이점은 다음의 대립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저 홀로 없어진 구름	/	경관이 치워야 없어지는 사내(거지의 시신)
천상적 존재	/	지상적 존재
무기물	/	생명체
자체적으로 생성	/	책임의 연대성·사회성
홀로 책임진다	/	사람(개)은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자연성	/	사회성
구름—비—물의 순환	/	사람—흙—물, 재의 순환
자연 현상의 규칙	/	사회 질서의 규칙

이런 일련의 연계성은 언술 1': "어쨌든 구름들이란 매우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한다"에서 암시된다. '구름들'은 누구일까? 하늘의 구름만이 아

닌 연고도 없이 죽은 거지 사내와 떠돌이개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서 구름과 사내와 개의 동일화가 적용된다. 언술 3과 4: “감정이 없는 저 몇 가지 음식들도/마지막까지 사내의 혀를 괴롭혔을 것이다/이제는 힘과 털이 빠진 개 한 마리가 접시를 노린다”를 보면 사내와 개는 서로 인접성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내가 죽기 직전까지 음식을 탐했던 것처럼 개도 생존의 조건에 매어 있음을 보게 된다. 개의 의식주를 살펴보면 털을 입고 있고, 언술 4'에서 거지의 음식을 노려 접시에 다가간다가 하는 데서 살려는 본능적 욕망이 드러나고 빈집에 사내와 같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 욕망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름은 언술 1에서 죽은 사내의 배경처럼 나타나다가 언술 1'에서는 “어쨌든 구름들이란 매우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한다”란 표현으로 문맥상 구름이 복수형임을 암시하면서 사내와 개의 포괄적 동일시가 암시된다. 여기서 다시금 이 세 대상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1) 넓게 보면 셋이 다 자연 현상이다. 언제 생겨나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자연 현상 중의 하나다. 2) 떠돌이다. 즉 사내는 사회 질서 속의 시민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집이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 사회 밖의 존재다. 개도 집과 주인이 있는 애완견이 아니라 주인 없는 떠돌이다. 구름도 하늘을 떠도는 존재다. 3) 더럽다. 시민이 거지가 되면 더럽듯이, 떠돌이개도 불결하며, 검은색을 띤 먹구름도 더럽다. 4)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하늘의 구름이 갑자기 소나기가 되어 폭우로 변할지 모르듯이 멀쩡한 시민도 언제 거지가 되어 길로 나왔을지 모른다. 이들의 변화무쌍한 공통된 속성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내 ----- 개 ----- 구름
 거지 ----- 떠돌이개 ----- 떠도는 먹구름
 보통 시민 ---- 주인 있는 집개 ---- 흰구름
 미치광이 ----- 광견병 걸린 개 ----- 폭우를 가져오는 소나기 구름

이와 같이 이들의 예측 불허의 공통점은 다음의 대립항으로 명료하게 드러난다.

거지 사내: 시민 / 부랑자
개: 애견 / 떠돌이개
구름: 흰구름 / 소나기 구름

결국 거지 사내와 개는 사회 밖의 존재이면서도 사회적인 처리(경관)가 필요한 사회 내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구름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사회 내적인 존재이길 벗어나 추악하지만 자유로울 수 있는 방관자적인 존재이며 여기서의 죽음도 자유로운 죽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거지 사내와 떠돌이개와 구름은 은유적 기법을 통해서 대립된 세계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자적인 경계선의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기형도의 시에는 이와 같이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 경계선적인 인물이나 대상물이 시적 소재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생전에 신문기자라는 직업상 다양한 대상을 보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인의 자유로운 정신이 어떤 사회 규칙이나 존재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시인은 법과 정치를 공부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고, 그런 대상을 시로 승화시켰다고 보여진다. 바로 이 「죽은 구름」이 대표적인 예다.

이쪽이나 저쪽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경계선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 있는 시선은 다음에 분석할 시 「오래된 서적」 「조치원」 「안개」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 내가 살아온 것은 거의
기적적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곰팡이 피어

나는 어둡고 축축한 세계에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질서

2. 속에서, 텅 빈 희망 속에서
어찌 스스로의 일생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
3. 다른 사람들은 분주히
몇몇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기능을
넘겨보며 書標를 꽂기도 한다
4. 또 어떤 이는 너무 쉽게 살았다고
말한다. 좀더 두꺼운 추억이 필요하다는

- 사실, 완전을 위해서라면 두께가
5. 문제겠는가? 나는 여러 번 장소를 옮기며 살았지만
죽음은 생각도 못했다. 나의 경력은
출생뿐이었으므로, 왜냐하면
 6. 두려움이 나의 속성이며
 7. 미래가 나의 과거이므로
 8. 나는 존재하는 것, 그러므로
용기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 보라

9. 나를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
나를 떠나갔다. 나의 영혼은
10.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누가 나를
펼쳐볼 것인가, 하지만 그 경우
그들은 거짓을 논할 자격이 없다
11. 거짓과 참됨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

꿈꾸어야 한다. 단
한 줄일 수도 있다

12.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오래된 書籍」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서적(書籍)이다. 서적은 생명체는 아니면서도 생명체보다 오래 존재하는 중간자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책이 사람의 정신적 작업의 소산이기 때문에 사람의 숨결과 영혼의 객관 상관물이라는 데서 책의 존재성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피가 흐르는 실존은 없고 본질만 있는 존재성이다.

사람과 서적은 사람의 정신을 공유한다는 공통점하에서 시 예술상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예술 1에서부터 8까지는 서적과 사람의 차이점이 나열되고 있다. 예술 1에서 서적이 곰팡이 피어나는 축축한 세계에서도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에 대해 스스로 놀라움과 경탄을 나타낸다. 도서관에 몇백 년씩 남아 있는 책을 연상할 수 있는데 책은 햇볕을 쬐면 바래지므로 “어둡고 축축한 세계”의 존재임을 말한다.

예술 2에서는 서적이 다른 사람들의 일생은 예언할 수 있지만 책은 이미 내용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은 희망도 없고 일생을 예언할 필요성도 없음을 말한다. 예술 3, 4: “다른 사람들은 분주히/몇몇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기능을/넘겨보며 서표(書標)를 쫓기도 한다/또 어떤 이는 너무 쉽게 살았다고/말한다, 좀더 두꺼운 추억이 필요하다는”에서 처럼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후회하고 좀더 많은 추억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서적의 맥락에서는 이런 행동은 단순히 너무 쉽게 책을 썼다고 후회하거나 두꺼운 양의 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될 뿐(즉 개정판이 필요) 서적의 인생은 정해져 있다.

예술 5: “여러 번 장소를 옮기며 살았지만/죽음은 생각도 못했다, 나의 경력은/출생뿐이었으므로”에서 책이 폐기될 수는 있지만 사람과 같은 유

기체적인 죽음은 없음을 노래한다. 그래서 책에게는 언술 6, 7, 8에서 노래하듯이 사람과 같은 용기도 필요 없고 미래도 없다. 그것을 대립항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사람	/ 서적
1. 햇빛과 그늘이 다 필요	/ 그늘 필요(햇빛에 바램)
2.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다	/ 텅 빈 희망
일생을 예언할 필요성이 있다	/ 예언이 불필요(정해져 있다)
5. 출생과 죽음이 있다	/ 죽음은 생각도 못한다
6, 8. 사는 데 용기가 필요	/ 두려움이 속성
7. 미래가 있다	/ 과거뿐이다

언술 9, 10, 11에서는 사람과 서적의 공통점이 나타난다. 언술 9: “나를 /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나를 떠나갔다”에서는 회자정리(會者定離)의 원리가 드러난다. 누구나 만나면 헤어져야 한다는 인간 사회의 이치가 책을 한번 본 사람은 모두 떠나갔다는 원리와도 동일하다. 그리고 언술 9, 10에서 “나의 영혼은/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누가 나를/펼쳐 볼 것인가, 하지만 그 경우/그들은 거짓을 논할 자격이 없다”와 언술 11의 “거짓과 참됨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꿈꾸어야 한다. 단/한 줄일 수도 있다”에서 나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서적의 인쇄된 검은 활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검은 활자가 검은 영혼을 나타낸다고보다 책의 거짓성과 책의 참됨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어떤 저자의 정신적인 소산인 책은 거짓일 수도(픽션) 있고 진실일 수도(철학·과학 등) 있다. 그래서 언술 11에서는 거짓과 참됨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 꿈꾸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점에서 책과 사람의 일치점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 언술 12에서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책의 거짓과 진실은 결국 노력의 산물이지 단순한 기적의 산물이 아니라는 뜻이 함축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 역시 책과 사람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이 시에서는 책의 목소리를 빌려서 앞부분에서는 책과 사람의 차이성을 뒷부분에서는 책과 사람의 공통점을 표현하고 있는데 책의 의인화를 통해 책의 입장에서 사람의 생을 재조명하는 특이한 발상법을 보여준다.

1. 사내가 달걀을 하나 건넨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1시쯤에
열차는 대전에서 진눈깨비를 만날 것이다.
스팀 장치가 엉망인 까닭에
마스크를 낀 승객 몇몇이 젖은 담배 필터 같은
기침 몇 개를 뱉어내고
쉽게 잠이 오지 않는 축축한 의식 속으로
실내등의 어두운 불빛들은 잠깐씩 꺼지곤 하였다.

2. 서울에서 아주 떠나는 기분 이해합니까?

고향으로 가시는 길인가 보죠.
이번엔, 진짜, 낙향입니다.
달걀 껍질을 벗기다가 손끝을 다친 듯
사내는 잠시 말이 없다.
조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죠. 서울 생활이란
내 삶에 있어서 하찮은 문장 위에 찍힌
방점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조치원도 꽤 큰 도회지 아닙니까?
서울은 내 동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방 사람들이 더욱 난폭한 것은 당연하죠.
3. 어두운 차창 밖에는 공중에 뜬 생선 가시처럼
놀란 듯 새하얗게 서 있는 겨울 나무들.

한때 새들을 날려보냈던 기억의 가지들을 위하여
어느 계절까지 힘겹게 손을 들고 있는가.
간이역에서 속도를 늦추는 열차의 작은 진동에도
소스라쳐 깨어나는 사람들. 소지품마냥 펼쳐보이는
의심 많은 눈빛이 다시 감기고
좀더 편안한 생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투리처럼 몸을 뒤척이는 남자들.
발 밑에는 몸쓸 꿈들이 뽕뽕 몇 개로 뒹굴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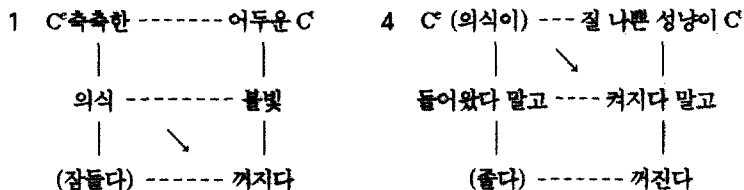
4. 그러나 서울은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르쳐주니까요. 덕분에 저는
도둑질말고는 다 해보았답니다.
조치원까지 사내는 말이 없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마지막 귀향은
이것이 몇 번째일까, 나는 고개를 흔든다.
나의 줄음은 질 나쁜 성냥처럼 금방 꺼져버린다.
설령 사내를 며칠 후 서울 어느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한들 어떠랴. 누구나 겨울을 위하여
한 개쪼ムの 외투는 갖고 있는 것.
5. 사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견고한 지퍼의 모습으로
그의 입은 가지런한 이빨을 단 한번 열어보인다.
플랫폼 쪽으로 걸어가던 사내가
마주 걸어오던 몇몇 청년들과 부딪친다.
어떤 결의를 애써 감출 때 그렇듯이
청년들은 툼밥같이 쓸쓸해 보인다.
조치원이라 쓴 네온 간판 밑을 사내가 통과하고 있다.
나는 그때 크고 검은 한 마리 새를 본다. 틀림없이

사내는 땅 위를 천천히 날고 있다. 시간은 0시.

눈이 내린다.

—「鳥致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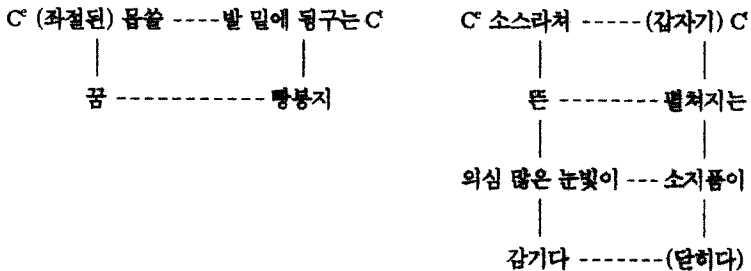
시 「조치원」은 겨울밤에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모습을 삽화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1을 보면 “스팀 장치가 엉망인 까닭에”에서 나타나듯이 진눈깨비가 내리는 추운 겨울날 스팀 장치도 엉망인 기차를 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행자의 상태도 1: “쉽게 잠이 오지 않는 축축한 의식 속으로/실내등의 어두운 불빛들은 잠깐씩 꺼지곤 하였다”와 4: “나의 졸음은 질 나쁜 성냥처럼 금방 꺼져버린다”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밤 기차 여행에 피곤한 여행자의 의식 상태를 “어두운 불빛” “질 나쁜 성냥”으로 비유하는 것이다. 1에서는 춥고 축축하고 피곤한 밤을 지나는 여행자의 의식이 나타나지만 4에서는 한 실패한 귀향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타난 명료하지 않은 의식이 비유되고 있다. 이 시의 배경은 곧 등장인물의 내면적 상태를 반영한다.

실패한 귀향길	/ (잘된 귀향길)
난방 안 된 추운 기차	/ (난방 된 기차)
흐리고 축축한 불빛	/ (밝은 불빛)
질 나쁜 성냥	/ (질 좋은 성냥)

조치원이 고향인 한 젊은이의 실패한 귀향길은 난방 안 된 추운 기차칸으로 연결되고 흐린 불빛과 질 나쁜 성냥으로 이미지가 연결된다. 이와 대립적으로 잘된 귀향길이었다면 난방이 잘된 따뜻한 기차칸이었을 것이고 밝은 불빛이었을 것이다. 물론 밤의 여행에서 졸다 깨다 하는 상태와 잠들락말락하는 상태를 흐린 불빛과 질 나쁜 성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실패한 귀향자의 상태까지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 상태는 3에서 여행자들의 잠든 상태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간이역에서 속도를 늦추는 열차의 작은 진동에도/소스라쳐 깨어나는 사람들. 소지품마냥 펼쳐 보이는/의심 많은 눈빛이 다시 감기고/좀더 편안한 생을 차지하기 위하여/사투리처럼 몸을 뒤척이는 남자들”과 “발 밑에는 몸쓸 꿈들이 빵봉지 몇 개로 텅굴곤 하였다”에 나타나는 비유에서 심화된다.



좌절된 꿈은 발 밑에 텅구는 빵봉지로 그 처참함이 비유되고 있고, 소스라쳐 깬 눈빛이 마치 갑자기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펼쳐지는 초라한 소지품처럼 개인적인 내용물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음을 비유하고 있다. 편치 못한 기차 여행에서 좀더 편하게 자려고 몸을 뒤척이는 모습은 사투리처럼 몸을 뒤척인다고 표현하면서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서 성공하기가 서울 사람보다 더 힘들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다시금 실패한 귀향길/잘된 귀향길의 대립 양상을 추가할 수 있다.

소스라쳐 깨어나다 / (안정된 잠든 상태)
 빵 몇 개로 식사 대신하다 / (식당에서 밥 먹다)
 사투리 사용 / (표준어 구사)

2에서는 “서울은 내 동우리가 아니었습니다”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실패한 귀향과 새 등지의 비유가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첫 연부터 (삶은) 달걀을 권하고 (삶은) 달걀 껍질을 벗기다가 손을 다치는 사건, “한때 새들을 날려보냈던 기억의 가지들을 위하여”에서도 암시되듯이 새와 등지로서의 나무의 관계가 반복해서 묘사되고 있다. 이 실패한 귀향자의 고향이 또한 조치원이라는 점에서도 새의 동우리 귀환 모티프가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알	-----	(지방) 사람
날다	-----	서울행, 다시 서울행 시도 가능성
나는 것 실패	-----	서울행 실패
등지로 되돌아오다	-----	조치원으로 되돌아오다

달걀을 깨먹는 행동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새의 모습이 연상되고 그 새가 날아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철새의 여행을 하였다가 정착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통과 의례의 실패 *sad initiation* 와 재시도가 ‘나무(원동지) - 기차(임시 등지) - 도시(개척한 등지)’의 비유 체계로 드러난다. 이 세 공간은 등지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나무는 새의 주거지이고 도시는 사람의 주거지이며, 기차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임시 주거지로 볼 수 있다. ‘새와 나무,’ 여행자와 기차, 그리고 거주인과 도시의 관계는 대상과 주거지라는 포괄의 의미를 띠, 환유적 관계를 보여준다. 비유의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새 -----여행자 ----- 거주인

나무(원동지) ----- 기차(임시 동지) ----- 도시(개척한 동지)

(겨울 나무/봄 나무) --- (난방 안 된 기차/난방된 기차) --- (조치원/서울)

동지 속의 알에서 깨어나 철새처럼 새로운 정착지로 갔으나 실패하고 귀향중인 새처럼, 이 시 속의 한 사내는 고향과 타향 사이를 오가며 실패와 재시도를 반복하던 중 현재 기차 안에 있다.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 사람이 -----	겨울에 여행하는 새가
추운 기차에서 -----	나뭇가지 위 동지에
사투리 쓰며 -----	(새소리를 내며)
빈 빵봉지를 -----	새의 꿈의 좌절을
닫고 나온다	

여기서 다시금 서울에 정착한 사람과 서울에 정착하지 못한 지방 사람의 대립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실패한 지방 사람	/ (성공한 지방 사람)
사투리 사용	/ (표준어 사용)
난폭해진다	/ (점잖아진다)
분노를 느낀다	/ (만족하다)
고생만 하다	/ (안주하다)

기차는 사내의 또 하나의 동지, 즉 임시 동지다. 여기서 보면 조치원은

새를 날려보낸 나뭇가지이고 서울은 등지를 잠깐 동안 뜬 나뭇가지로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지방 사내의 모습이 조치원에 도착 하자 새로운 비상을 시도하는 크고 검은 새로 표상되고 있다. 겨울 여행은 새에게나 사람에게나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단순한 기차 여행의 단면을 묘사한 것이라기보다 지방 사람의 서울 생활이 얼마나 힘들 수 있나를 그려주고 있다. '겨울새 · 여행자 · 정착자'의 비유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이 경계선적인 매개항의 존재를 볼 수 있다.

고향 / 기차 속(귀향중) / 타향(서울)
 원동지 / 동지 모색 / 새로운 동지 정착 실패
 알 깨다 / 검은 새 날다 / 날기 실패
 사투리 / 뒤척이는 사투리 / 표준말 정착

1

아침 저녁으로 셋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2

이 읍에 처음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간헐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어떤 날은 두꺼운 공중의 종잇장 위에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

안개의 軍團은 셋강에서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는다.

출근길에 늦은 여공들은 깔깔거리며 지나가고
긴 어둠에서 풀려나는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은 느릿느릿 새어나오는 것이다.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
보행의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멀리 송전탑이 희미한 동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
방죽 위로 걸어가는 얼굴들은 모두 낮설다.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맑고 쓸쓸한 아침들은 그러나
아주 드물다. 이곳은 안개의 聖域이기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안개는 셋강 위에
한 겹씩 그의 빠른 옷을 벗어놓는다. 순식간에 공기는
회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 찬다. 그 속으로
식물들, 공장들이 빨려들어가고
서너 걸음 앞선 한 사내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죽 위에서 醉客 하나가 얼어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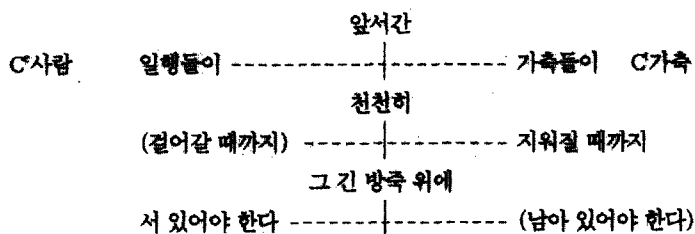
바로 곁을 지난 삼륜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안개가 걷히고 정오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젖은銃身을 겨눈다. 상처입은 몇몇 사내들은
험악한 욕설을 해대며 이 폐수의 고장을 떠나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읊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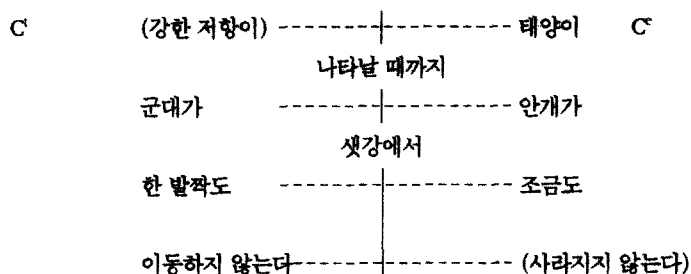
아침 저녁으로 샛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안개는 그 읊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회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력무력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안개」

「안개」에서 안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공단 사람들이 생산해
낸 공해의 산물로서 공단 마을을 폐수와 오염에 싸이게 하고 공단 사람들
의 건강과 인간성, 사회 관계를 바꾸어놓는 기계화·산업화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 단락 2에서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쉴쉴
한 가축들처럼 그들은/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를 보면, 이 공단
에 온 사람은 안개의 강에 꼼짝없이 포로가 되는 상황을 가축들처럼 수동
적인 상태로 비유하고 있다.



동사 '걸어가다/서 있다'는 자유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므로 주어 '일행'에 걸리고 '지워지다/남아 있다'는 타인이 조종하는 수동적 상태로서 주어는 '가축'에 연결된다. 이런 수동적 상황은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간헐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에서 나타나듯이 사람이 '간헐 있는 상황'으로 느끼게 되어 두려움을 불러오게 된다.

안개에 대립되는 존재는 태양, 송전탑들인데 별위력이 없고 오히려 안개가 군대가 주둔해 있는 것처럼 섯강을 점령하고 있다. 그것은 태양이 '두꺼운 종이의 노랗고 딱딱한 형체'로서 종이로 비유되는데, 안개 역시 '두꺼운' 것으로 묘사되면서 태양에 조금도 지지 않는 존재로 드러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태양이 이 공단 마을에서는 별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시에서 안개가 보여주는 점령군의 속성은 첫번째로, 사람들을 명령

하고(지워져라, 남아 있어라) 포위하여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간혀 있다는 기분). 두번째로는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방죽 위로 걸어 가는 얼굴들은 모두 낮설다. 서로를 경계하며/바쁘게 지나가고”에서 나타나듯이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사람들끼리의 결속보다는 군대에 반항하는 행동을 하는 자를 밀고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세번째로 안개의 점령군적 속성은 칼의 속성을 띤다. “순식간에 공기는/회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 찬다. 그 속으로/식물들, 공장들이 빨려들어가고/서너 걸음 앞선 한 사내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에서 보여주듯이, 안개에 가려지는 한 사내의 반쪽 모습을 칼에 ‘잘려지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 안개는 점령군들이 가차없이 사람을 칼로 자르듯이 반쪽으로 자른다. 이런 안개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사람들은 “습관이란/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에 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곧 길들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처음 얼마 동안은 “보행의 경계심”을 느끼지만 점점 안개 속을 뚫고 다니게 되고 나중에는 미친 듯이 흘러다니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

안개는 이렇듯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몇 가지 사소한 사건이 터진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그것으로 끝이었다”에서 나타나듯이 입이 막힌 여직공이 겁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입이 막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언론(言路)이 막혔다는 것을 암시한다. 군대가 통치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취객이 방죽 위에서 얼어 죽은 사건도 있었다.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지나가는 삼륜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한다. 안개의 지배는 이와 같은 개인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자는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라고. 결국 안개의 철저한 감시와 통치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며 개인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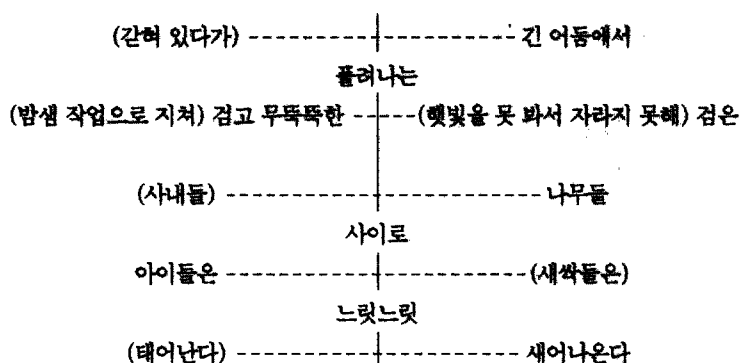
이렇게 드러난 안개의 속성은 바로 군대가 다스리는 폭력의 정치로 비유되고 있다. 이 비유 관계의 공통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 개	군부 독재
1. 주변을 볼 수 없게 가린다	1.' 보는 권리를 막음
2.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가축)	2.' 군대식 규율의 독재적 사회
3.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간다	3.' 서로를 감시
4. 여공이 겁탈당해도 입이 막히면 끝이다(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아 여공을 구해줄 수 없다)	4.' 시민의 권리가 탈취당해도 언론가 막히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 취객은 방죽에서 얼어 죽었다(안 개 때문에 보이지 않아 구해줄 수가 없다)	5.' 군사 독재에서는 개인의 생명은 지켜주지 않는다
6. 안개가 걸히면 공단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낸다(젖은 총신)	6.' 군사적 통제의 권위가 먹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총을 겨눈다
7. 상처입은 공단 노동자들이 떠난다 (공해의 고장)	7.' 군사 독재에 상처입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난다(비민주의 나라)
8.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8.' 80년대 군사 독재는 한국의 명물이다
9. 누구나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9.' 누구나 군사 독재에 책임이 있다
10. 여공들의 얼굴은 햇빛을 못 봐 회다	10.' 국민들은 군사 독재에 길들여진다
11. 아이들은 자라면 모두 공장으로 간다	11.' 아이들은 자라면 군사 정권의 일원이 된다

안개와 군단의 비유적인 맥락으로 시를 따라 읽어가면 이런 현실 비판적인 구조가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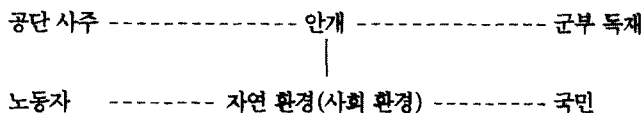
그러나 안개의 상징성은 군대 정치뿐만이 아니라 환경 공해의 문제로

연결된다. “출근길에 늦은 여공들은 깔깔거리며 지나가고/긴 어둠에서
 풀려나는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아이들은 느릿느릿 새어나오는
 것이다”에서 나무와 사람의 먼 장래까지도 안개가 지배하고 있음에 걱정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아이들과 새싹들은 햇빛을 보지 못해서, 또는 건강한 공기를 마
 시지 못해서 ‘느릿느릿’이란 형용사와 함께 태어나는 것이다. 힘찬 생명
 력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그리고 “여공들의 얼굴은 회고 아름다우
 며/아이들은 무력무력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라는 마지막 문장에서
 독자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공들의 얼굴이 흰 것은 건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임을 비껴간다. 흰 피부를 단
 순히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언외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공단 아이들을
 살리는 공단의 공장 활동이 동시에 그들을 병들게 하고 기계화시킨다는
 사실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계속 아이러니한 어조로 여공의 겁탈
 사건과 취객의 죽음을 “사소한 사건”이라고 언급해버린다. 그것이 전혀
 사소하지 않은 사건임은 시인도 잘 알고 있다. 여기서 이 세 존재의 대비
 가 나타난다. 안개로 비유되는 공단 사주와 군부 독재의 권력자들은 노동
 자, 자연 환경, 국민과 공생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피지배자들의 자유와 개

인주의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대립적 관계에 있다.



공단 사주 / 노동자
 안개 / 자연 환경
 군부 독재 / 국민

산업화 시대의 자연 환경과 노동자는 군부 독재에 신음하는 국민과 대비되고 안개와 공단 사주와 군단 지배자는 자유는 없고 권위만 남은 독재자에 대비된다. 권위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겠지만 또 자유가 없는 권위 위주의 사회는 감시와 처벌의 닫힌 사회를 만든다.

한편 공단의 사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자신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시키더라도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밀어붙여왔으므로 이 시대의 한국인들 모두 안개의 독재 체제에 동조한 것이다(“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부를 얻는 대신 공해를 가져온 산업화의 폐해는 오히려 군부 독재의 속성을 빌려 고발되고 있다고 볼 정도다. 즉 ‘안개’가 ‘비유하는 것 *comparant*’ 이 되고 ‘군부 독재’가 ‘비유되는 것 *comparé*’ 으로 위치를 바꾼다.

안개는 해가 뜨기 전의 시간과 해가 진 후의 시간을 지배하며 군림한다. 여기서 안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지배하며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오직 권위만의 독재적 속성을 띠고 있다. 군대에서 명령이 절대적인 힘인 것을 비유한 것이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안개의 속성임이 드러난다. 빛이 없는 상태란 무엇인가. 바로 사고가 마비된 개인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산업화에 마비된 의식과 동시에 군부 독재 체제에 익숙해진 생활 방식의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모든 물체들을 빨아들이고 자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안개다. 여공의 겁탈 사건과 취객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은 사건은 자본주의 산업화 또는 군부 독재 체제에서 물질에 침몰되어 윤리와 양심, 인간적인 것, 개체성, 자유가 잊혀졌을 때 닥쳐올 어떤 파국적 국면을 보여준다.

공장 굴뚝의 검은 연기가 젖은 총신으로 비유되면서, 자본주의 산업화의 결말이 노동자의 착취와 군부 독재의 인권 말살로 이어짐을 함축하고 있다. 안개가 주식에 비유되는 맥락에서는 결정적으로 자본주의 산업화가 바로 안개의 배후 세력임을 암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증권과 주식이 바로 자본이고 돈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부를 추구하면서 그 폐해도 심해졌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형도의 시들에서 나타나는 점은 그가 개인의 의식과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양심과 관용을 중히 여기는 인문주의적인 사고를 지닌 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독단과 간섭, 공동체 논리, 기계화, 광신주의와 같은 사회적 권위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존재들을 시적 대상으로 삼았고, 또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집단 논리에 종속되어버리는 과정을 나타낸다.

참고 문헌

- 김경복, 「유배된 자의 존재 시학」, 『풍경의 시학』, 도서출판 전망, 1996.
 김옥순, 「은유구조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1989.
 김인중, 「사설시조에 나타난 은유의 의미 작용 연구」, 『관악어문 연구』 5집, 1980.
 김태욱, 「현대시의 언어 · 기호학적 고찰」, 『언어』 16권 1호, 1980년 6월.
 반경환, 「절망과 행복」, 『시와 시인』, 문학과지성사, 1992.

신현숙, 「시에 나타난 담화 유형」, 『선청어문』 제22집,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과, 1994년 9월.

야콥슨, 로만,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89.

오세영, 『문학 연구 방법론』, 이우출판사, 1988.

이경수, 「시에 있어서의 정보의 효용과 한계」, 『상상력과 부정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6.

이어령, 『시 다시 읽기』, 문학사상사, 1995.

정원용, 『은유와 환유』, 신지서원, 1996.

주네트, 제라르, 김현 편, 「줄어드는 수사학」,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1972) 1985, pp. 117~43.

최지현, 「공간 메타포에 의한 상상의 문화적 체험」, 『선청어문』 제23집, 1995년 4월.

프라이에, 노드롭, 이상우 옮김, 『문학의 구조와 상상력』, 집문당.

호옥스, 테렌스, 심명호 역, 『은유』, 서울대 출판부, (1970)1978.

Black, Max, "Metaphors," *Model and Metaphors*, Ithaca: Cornell Univ. Press, 1962, pp. 25~47.

Delas Danie et Filliolet, Jaques, *Linguistique et Poétique*, 1973(유제식 · 유제호 옮김, 『언어학과 시학』, 인동, 1985).

Le Groupe μ , *Rhétorique Générale* (용경식 옮김, 『일반 수사학』, 한길사, 1989).

Eco, Umberto,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1984(서우석 · 전지호 옮김, 『기호학과 언어철학』, 청하, 1987, pp. 140~202).

Group μ , *General Rhetor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1, 1971, pp. 1~163.

Henle, Paul, *Metaphor, Language, Thought & Culture*, Ann Arbor Paperbacks: The Univ. of Michigan Press, 1965, pp. 173~95.

- Hrushovski, Benjamin, "Poetic Metaphor and Frames of Reference with Examples from Eliot, Rilke, Mayakovsky, Mandelshtam, Pound, Creeley, Amichai, and the New York Times," *Poetics Today*, vol. 5, 1984, pp. 5~43.
- Jakobson, Roman, *Selected Writings II: Word and Language*, Paris: The Hague Mouton, 1971, pp. 239~59.
- , *Selectecd Writings III: Poetry of Grammar and Grammar of Poetry*, Mouton Publishers, 1981, pp. 87~97, 740~56.
- Lakoff, George and Johnson, Mark,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0(노양진 · 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 Morier, Henri, *Dictionaire de Poetique et de Rhetorique*, Paris: Presses Univ. De France, [1961]1981, pp. 670~743, 998~1005, 1102~20.
- Priminger, Alex,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4, p. 474.
- Richards, I. A., *The Philosophy of Rhetoric*, Lond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36]1977, pp. 89~138.
- Ricœur, Paul, *La Métaphore Vive*, trans. Robert Czerny with Kathleen McLaughlin and John Costello, sj.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1975]1977.
- Riffaterre, Michael, *Semiotics of Poetry*, 1978(유재천 옮김, 『시의 기호학』, 민음사, 1989).
- Ryle, Gilbert, *The Concept of Mind*, London, Hutchinson, Harmondsworth: Penguin, [1949]1963, pp. 7~24.